

### 치매어르신 실종방지 '배회감지기' 보급

광주 동구, 실시간 위치·안심존 진입 등 보호자 호응 스마트 배회감지기 15개 (주)브레인포커스가 후원

광주 동구는 치매 환자와 가족이 걱정 없는 동구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치매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동구치매안심센터 등록 대상자 중 실종위험이 있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스마트 배회감지기'를 보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보급한 스마트 배회감지기 15개는 (주)브레인포커스가 후원했다. 배회감지기는 GPS를 통한 위치추적으로 치매어르신이 길을 잃고 배회할 때 배회감지기가 연결된 보호자의 핸드폰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대상자의 위치를 파악, 실종을 예방할 수 있는 기기이다.

또한 간편한 손목시계형으로

제작돼 치매대상자가 쉽게 풀 수 없도록 풀림방지 장치가 돼 있으며 ▲대상자의 실시간 위치 ▲안심존 진입·이탈 확인 ▲대상자 SOS 확인 등 보호자 핸드폰에서 치매환자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 가족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실제 최근에 길을 잃은 한 치매어르신이 배부 받은 배회감지기를 통해 보호자 핸드폰으로 대상자의 위치가 제공돼 안전하게 가족 품으로 돌아온 사례도 있었다.

이외에도 동구에서는 배회인식 표 발급, 광주동부경찰서와 협약을 통한 사전 지문등록 등 치매어르신의 실종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자세한 문의는 동구치매안심센터 ☎608-3490~4.

임택 동구청장은 “매년 치매어르신들 실종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배회감지기 보급으로 치매환자와 가족들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한 “앞으로도 치매환자는 물론 모든 주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미희기자

### 곡성군, 올해도 전 군민 대상 군민안전보험 가입합니다

곡성군이 올해도 1월 1일부터 전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재난, 재해, 사고 등 예측하기 어려운 피해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곡성군에서는 군민들이 각종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도록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해오고 있다.

보험 가입에 따라 곡성군민이라면 누구나 총 14종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가스 상해위험사망, 후유장애를 추가한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및 후유장애,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익사사고 사망, 스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5급), 강력범죄 상해,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등이 보장범위에 들어간다. 보상 금액은 사고 사망 시 1천만원, 후유장애 발생 시 정도에 따라 최대 1천만원 한도이다.

군민안전보험은 곡성군 전 군민과 주소 등록 외국인을 대상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를 밟지 않아도 누구나 혜택을 볼 수 있다. 또한 모든 보장내용은 타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며 타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해외에서 사고 시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올해 보장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사고가 나면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사고처리 전담창구 전화는 1577-5939으로 접수하면 된다.

곡성=양혜영기자

### 무안군, 신생아 양육비 거주지 제한 완화

셋째아 이상 다둥이 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50만원 지원

무안군은 1월부터 신생아 양육비 지원관련 거주요건 제한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현재 신생아 양육비는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150만원, 셋째아 250만원, 넷째아 이상 300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출산가정의 행복한 육아를 축하하는 의미에서 1인당 10만원 상당의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신생아 출생일 이

전 1년 미만 주민등록 가정에는 출산순위와 상관없이 출생신고 시에만 50만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앞으로는 출생일 이후 계속해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유지할 경우 출생일 이전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가정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양육비를 지급한다.

군은 출산장려와 양육지원을 위해 '무안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등록 기간에 따른 신생아 양

육비 지원금액 형평성 문제를 해소했다.

또한 2020년 출생아 중 거주요건 제한으로 신생아 양육비를 지원받지 못한 부모는 영아의 출생일 기준 무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할 경우 나머지 신생아 양육비를 소급 적용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군은 1월부터 양육비 지원과는 별도로 셋째아 이상 다둥이 가정 육아용품 구입비를 신생아 1인당 50만원씩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1월 1일 이후 셋

째아 이상을 출산한 가정으로 출생일 기준 무안군에 부부 모두가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가정이며, 출생아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이며 자세한 사항은 무안군 보건소 건강증진팀(☎ 061-450-5030)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신생아 양육비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행복한 출산과 양육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무안=이기성기자

### (재)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에 각종 기관 단체 후원 이어져



(재)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이사장 황재우)에 연말연시 맞아 각종 기관·단체로부터 따뜻한 후원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재)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은 지난해 12월 30일 정현복 광양시장과 황재우 보육재단 이사장, 상임이사, 기탁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후원금 기탁식을 가졌다.

이날 기탁식에는 광양중앙로타리클럽(회장 정형기)에서 정기후

원 CMS 60계좌, 농협은행광양시지부(지부장 최윤선)에서 4백만원, 중마동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한기택)에서 795,400원, 바르게살기운동 금호동위원회(위원장 심순애)에서 1백만원, 시집가는날 미용실(대표 한숙경)에서 1,099,820원, K dot.dark(대표 김삼미)에서 1백만원, 광양시청 순종고동문회(회장 이재운)에서 5백만원을 기탁했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

### 광주 이마트 광산점, 드림스타트 아동에 옷 나눔

이마트 광산점(점장 강정운)이 6일 (사)함께하는 한숨을 통해 300만원 상당의 아동의류 100벌을 광산

구 드림스타트 아동에게 전달했다. 강정운 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아이들에게

온정의 손길이 이어져 따뜻한 겨울로 기억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임형택기자



**만나서 영광입니다!**

영광의 청정자연과 어우러져 탄생한 건강한 우리 식품을 만나보세요